한섬 (020000)

새 옷으로 옷장을 채울 시간

유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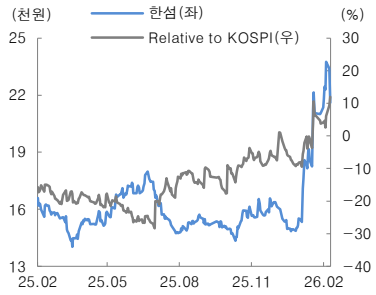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상향
현재주가 (26.03.04)	21,600 섬유의복업종

-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한 개인 소비 증가
- 26년 1월 백화점 여성복 판매 17~21% 급증
- 동사는 과년차 재고 모두 떨고 마진이 급상승하는 영업레버리지 시기 도래

KOSPI	5093.54
시가총액	48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750원 / 14,03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0억원
외국인지분율	19.28%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40.50% 베어링자산운용 7.4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4	32.5	41.2	38.5
상대수익률	19.6	4.8	-11.3	-31.3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한 개인 소비 증가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지난 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 올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하였음. 핵심 산업의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겪으면서 개인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 실적 호전 기업들의 인센티브와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국내 소비는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이제 진짜 소비가 늘기 시작. 26년 1월 백화점 여성복 매출 17~21% 급증

코로나 기간 과도하게 소비했던 품목들은 지난 3년간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 그러나 해외 여행 급증세가 진정되고 고환율 여건이 지속되면서 국내 소비가 다시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 25년 3분기부터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실질 소비를 늘리고 있음을 의미. 26년 1월 국내 백화점 여성복은 17~21% 급증. 남성복도 12% 증가하며 사람들이 옷과 같은 사치성 소비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감지됨

한섬 재고 모두 떨고 매출과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영업레버리지 시기 도래

지난 3년간 할인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부진하면서 이익이 급감했던 동사는 드디어 25년 4분기에 과년차 재고 모두 소진. 1-2월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과 마진율 개선의 영업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돌입.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6-27년 실적 상향 조정에 따라 목표주가를 35,000원(12MF P/E 8배)으로 상향 조정(+40%)하며 BUY 의견을 유지함

한섬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85	1,492	1,631	1,792	1,792
영업이익	63	52	101	125	125
세전순이익	57	56	105	128	129
총당기순이익	43	46	80	98	98
지배지분순이익	45	46	80	98	98
EPS	1,894	2,063	3,556	4,355	4,359
PER	7.8	7.6	4.4	3.6	3.6
BPS	59,656	63,912	66,691	70,241	73,781
PBR	0.2	0.2	0.3	0.3	0.3
ROE	3.2	3.3	5.4	6.4	6.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한 개인 소비 증가

한국은행 2026년 국내 GDP 성장률 1.8%에서 2.0%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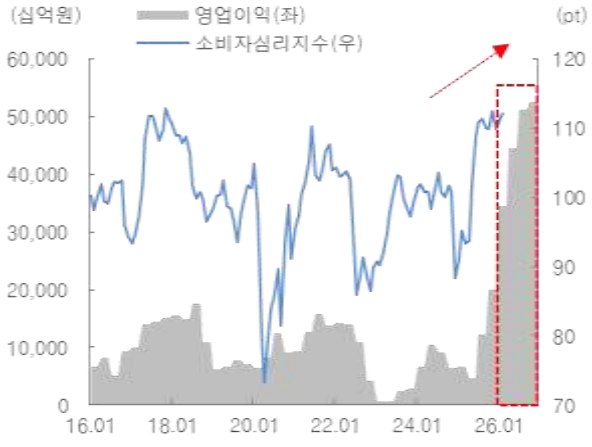
국내 소비를 좌우하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은 GDP 성장률과 내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 증가율은 31%에 달하며 반도체 수출액은 131%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글로벌 IB 업계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단순히 GDP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KOSPI 상승과 이에 따른 개인들의 자산 증식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우리나라 반도체 Top 2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소비의 상관 관계는 매우 의미 있게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사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KOSPI의 상승을 주도하고 이는 개인 및 가계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그림 1, 2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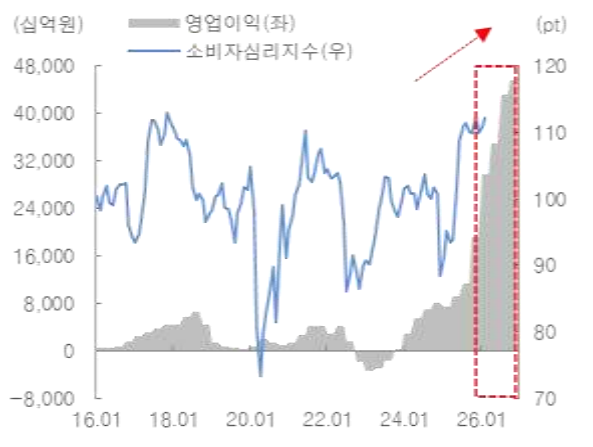
최근 상기 2개사가 지급한 2025년 성과급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급된 양사의 2025년 성과급 규모는 대략 지난 해 우리나라 내수 소매 시장 655조원의 약 1%에 가까운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GDP 성장률과 소매 시장 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2028년까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1. **삼성전자 영업이익 & 소비자 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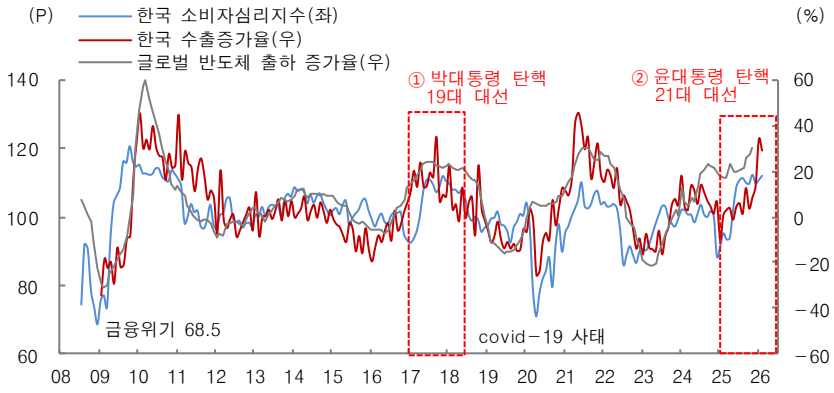
주: 2026년 실적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삼성전자, Fnguide,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 소비자 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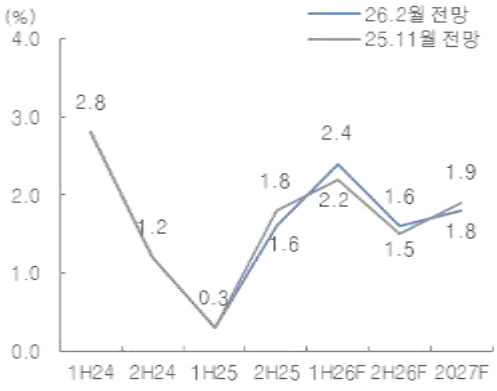
주: 2026년 실적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SK하이닉스, Fnguide,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수출 증가율 & 소비자 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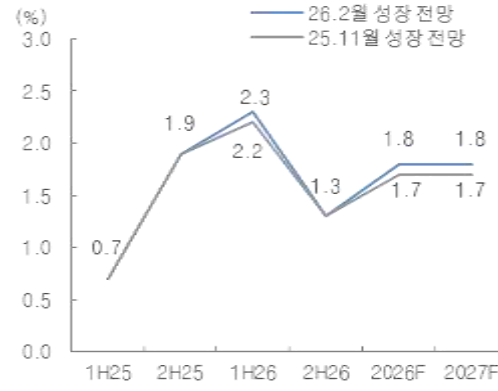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 경로**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한국은행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 경로**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5년 하반기부터 진짜 소비가 늘기 시작했다

25년 하반기부터 해외 소비 진정, 내수 소비 회복세 뚜렷

국내 소비의 또 다른 변수로 해외 소비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21-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소비가 급감하고 내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것이 2022년말부터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그 반대 현상을 겪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 가계의 해외 소비는 분기당 9조원을 상회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2조원대까지 급감하였으나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히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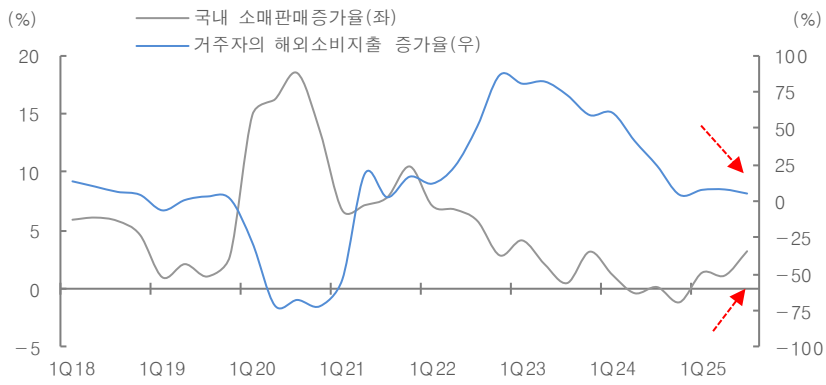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서는 21-22년간 소비를 크게 늘렸던 품목들의 소비가 크게 줄기 시작했다. 2년간 재화 소비가 비이성적으로 크게 증가한데 따른 부작용에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시작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 여건은 어려워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지만 몇 년간 못했던 해외 여행을 가야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드는 해외 여행을 위해서라도 국내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5년 하반기부터 실질 소비 증가 시작

이렇게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던 해외 소비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고환율이 상황이 지속되고 해외 여행의 pent-up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다시 해외 여행에 쏠렸던 개인들의 소비가 국내 소비로 유입되면서 내수 소비가 활력을 띠게 된 것이다. 2025년 3분기 가계의 해외 소비는 yoy 5% 증가하였는데 환율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3%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은 yoy 3.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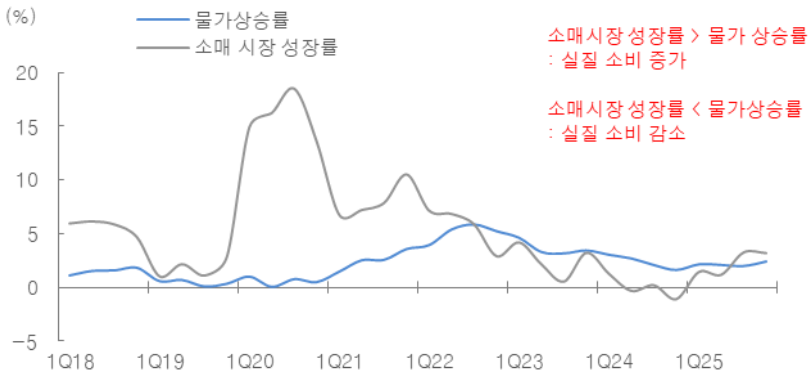
해외 소비와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이 같은 3%대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해외 소비는 증가세가 25년 1, 2분기 약 8% 수준에서 3분기 5%로 낮아진 것과 달리 같은 기간 1%대에 불과하다가 1%대에 불과하던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이 3분기에 3%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3분기 소비자 물가가 2.0%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매행위 자체가 늘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25년 1, 2분기 소매 시장 성장률이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던 시기와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는 1, 2분기는 물가는 상승하고, 구매 행위가 줄어들었으나 3분기부터는 완만한 물가 상승에 구매 행위도 늘어나는, 진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거주자의 해외 소비 증가율 vs.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소비자물가 상승률 vs. 내수 소매 시장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백화점 매출 성장 1등 공신은 여성복과 럭셔리

25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의류 매출 증가, 26년 1월 여성복 17~21% 급증

내수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백화점의 매출 성장률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지난 해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섬 브랜드가 해당되는 여성 정장, 캐주얼, 남성복 카테고리 매출 성장세가 지난 해 4분기 각각 6.1%, 10.0%, 4.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은 매출 성장세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월 백화점 전체 기존점 성장률은 13.4%를 기록했고, 여성 정장과 캐주얼, 그리고 남성복이 각각 21.1%, 17.0%, 1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의 경우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 성장률이 20%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국내 남녀 패션 매출액도 백화점 성장률과 유사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 여력이 커진 고객들이 백화점과 같은 고가 의류 중심 채널에서 소비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수출 호조와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으로 자산 증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산 증식 시기를 배경으로 지난 3년간 가장 소비를 줄였던 품목, 즉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림 8. **백화점 전년동월 대비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비식품								식품	합계
	잡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용품	해외유명 브랜드	비식품 소계		
25. 1 월	0.5	-6.2	2.2	0.7	9.3	-1.1	17.3	7.2	24.9	10.3
2 월	-6.5	-3.1	-11.2	-11.3	-7.6	4.3	4.5	-0.7	-21.2	-3.6
3 월	-3.8	-5.4	-3.3	-8.9	-1.6	-2.2	-2.7	-3.3	3.5	-2.1
4 월	-6.5	-8.1	-7.1	-11.3	-6.2	-6.2	1.1	-3.9	4.5	-2.9
5 월	-5.7	-2.0	-2.2	-5.3	-1.3	2.0	8.1	1.9	4.4	2.3
6 월	-13.3	2.5	-4.7	-2.4	-3.1	-2.1	2.9	-1.6	1.3	-0.9
7 월	-10.3	7.3	2.7	1.2	1.7	8.9	11.3	5.3	3.4	5.1
8 월	-5.5	4.2	0.9	2.8	2.4	0.1	12.4	5.1	-9.9	2.8
9 월	-1.5	6.1	2.4	-3.2	-1.7	-4.3	12.6	4.2	4.1	4.8
10 월	6.8	2.8	13.9	2.8	8.3	-0.8	19.5	10.5	16.4	12.2
11 월	3.9	8.4	2.2	7.7	4.3	5.7	23.3	12.0	5.0	12.3
12 월	3.4	7.0	13.9	2.9	3.7	3.8	13.7	9.0	6.5	9.3
26. 1 월	**7.3**	**21.1**	**17.0**	**11.6**	**8.0**	**11.6**	**31.0**	**19.7**	**-18.8**	**13.4**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고 다 털고, 정상가 판매율 상승하며 GPM이 개선된다

3년된 오랜 재고들 드디어 다 소진, 정상가 판매율 상승 시작

동사는 2022년까지 국내 패션업계 호황으로 호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말부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해외 여행 수요 급증 등으로 국내 패션 소비가 크게 줄기 시작하면서 2023년 1분기부터 2021-2022년 호황기에 맞춰 생산 기획했던 물량에 대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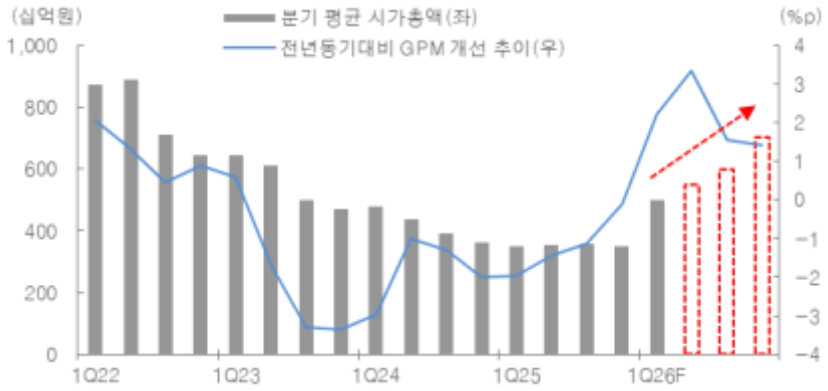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판매되고 남은 1년차 재고는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유통되고 2년차에는 팩토리 아울렛에서 유통된다. 그리고 3년차까지 판매하다 남은 재고는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패션업계가 23-25년 불황을 겪는 와중에 동사도 3년간 재고로 GPM이 줄곧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3년부터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생산량 물량을 줄였으나 곡내 소비 침체가 예상 보다 심하게 나타나면서 줄어든 재고도 정상 시즌에 소화가 안되는 현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GPM의 개선은 이익률 개선 뿐 아니라 이익 레버리지가 커짐을 의미

동사의 GPM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9.6%를 기록했다가 국내 패션 소비가 급증했던 2021-2022년에는 각각 60.1%, 61.3%까지 상승했다. 이랬던 GPM은 2023년 59.4%, 2024년 57.5%, 2025년 56.3%로 계속 추락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오래된 과년차 재고가 25년 4분기에 다 소진되고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정상가 판매율이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와 같은 소비 회복세라면 올해 yoy 2.3%p 개선된 58.5%를 거쳐 2027년에 60%대로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PM의 개선은 단순히 마진이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브랜드 할인 판매의 감소, 그리고 재고의 건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이제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선순환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OPM 개선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림 9. **한섬 GPM & 시가총액**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Valuation 및 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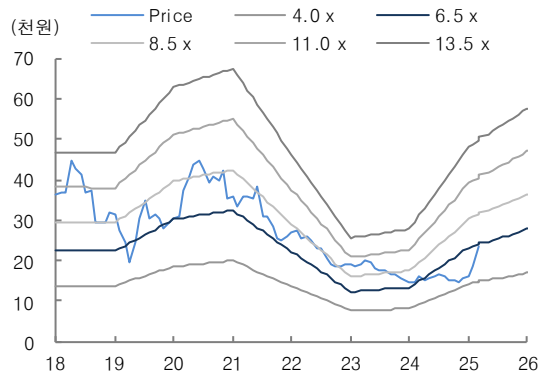
실적 turn around와 함께 valuation 저평가 매력 극대화

2021-2022년 국내 패션업계가 호황이었을 당시 동사의 PER은 최저 4.6배, 최고 11.3배로 평균 8.0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12개월 Forward PER은 약 5배 수준으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후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20%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다.

당사는 현재 동사의 1분기 컨센서스 매출 성장률이 5~6%에 불과한데 반해 실제 성장률이 HSD%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분기 매출에 지난 2-3년간 구매를 하지 않았던 신규 account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정상가 판매율 상승으로 구매단가도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6-2027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20%, 28% 상향 조정한다. 실적 상향 조정을 근거로 동사의 목표주가는 35,000원(12MF 8.8배)로 상향하는데 목표 PER 8배는 2021-2022년 호황기 peak valuation 11.3배를 20% 할인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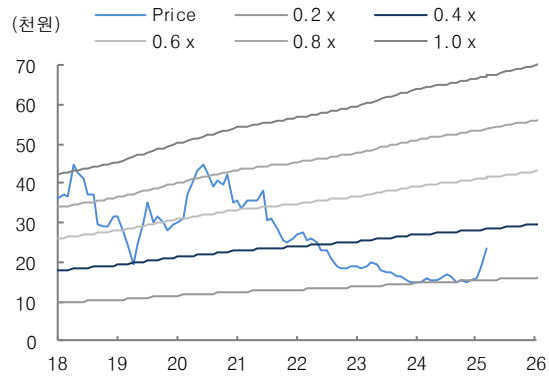
참고로 2026년부터 패션 경기 호황이 시작었기 때문에 현재 당사의 실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12개월 Forward PER 11.3배는 49,000원으로 산출된다. 물론 올해 2026년 실적이 추가로 상향 조정되거나 2027년 경기 상승 사이클이 예상 보다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지금 PER valuation 5배는 동사를 적극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10. 한섬 PER 밴드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한섬 PBR 밴드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간 실적 추정 변경

(단위: 십억원, 원, %)

	수정전		수정후		변동률	
	2026F	2027F	2026F	2027F	2026F	2027F
매출액	1,545	1,616	1,631	1,792	5.6	11.0
영업이익	85	98	101	125	19.6	27.5
지배지분순이익	67	77	80	98	18.8	26.5
영업이익률	5.5	6.0	6.2	6.9		
순이익률	4.3	4.8	4.9	5.4		

자료: 영원무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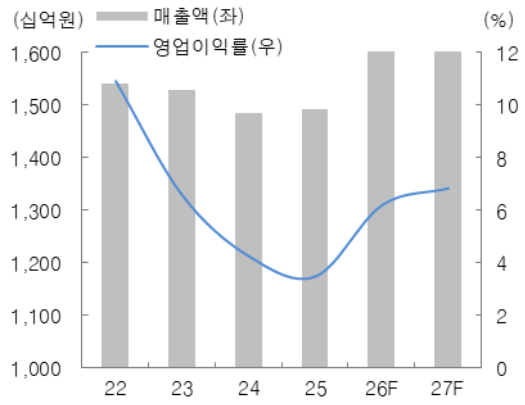
표 1. 한섬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2025				2026F				2025	2026F	2027F
	1Q	2Q	3Q	4Q	1Q	2Q	3Q	4Q			
매출액	380	338	310	464	420	368	339	504	1,492	1,631	1,792
영업이익	22	1	3	27	34	13	14	40	52	101	125
영업이익률	5.7	0.2	0.8	5.9	8.0	3.6	4.1	8.0	3.5	6.2	6.9
YoY											
매출액	-3.4	-1.1	-1.5	6.4	10.4	8.8	9.4	8.7	0.4	9.3	9.9
영업이익	-33.1	-82.0	-59.0	30.4	54.8	1,697.0	467.7	48.1	-17.8	94.1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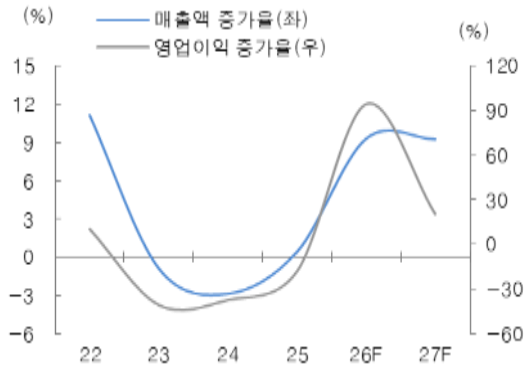
주: K-IFRS 연결기준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매출액 &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 기업개요

기업 및 경영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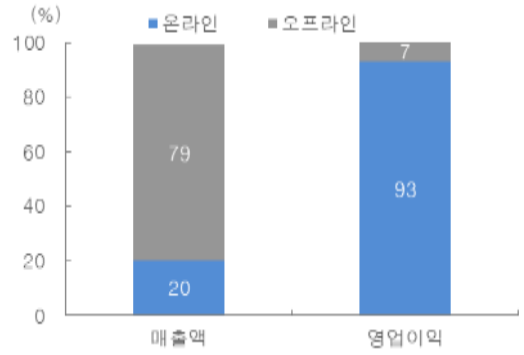
- 여성복 제조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패션의류 전문업체
- 주요 브랜드로 SYSTEM, MINE, SJSJ, TIME, LANVIN COLLECTION 등이 있음
- 2016년 한섬글로벌과 현대지앤에프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SK 네트웍스 패션 부문을 인수한 바 있음
- 온라인 사업으로 더한섬닷컴을 운영 중
- 자산 1조 7,462억원, 부채 3,401억원, 자본 1조 4,061억원
- 발행주식 수: 23,398,500주 / 자기주식수: 1,921,506주

주가 변동요인

- 국내 소비경기
- 신규 브랜드 출시 및 출점 계획
- 온라인 채널 성장률, 오프라인 채널 수익성 개선 여부

주: 자산 규모는 2024년 12월 기준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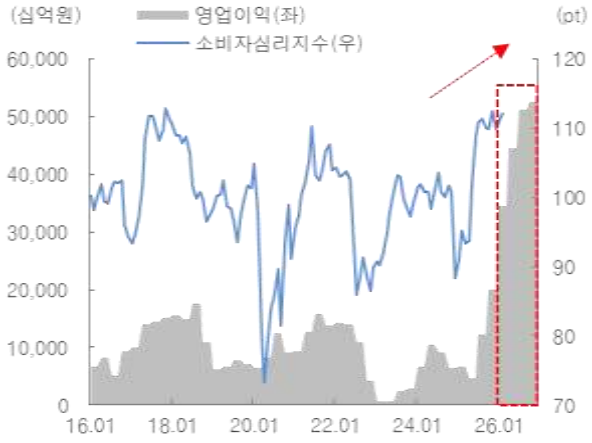
채널별 매출/영업이익 비중 추이(2024년 기준)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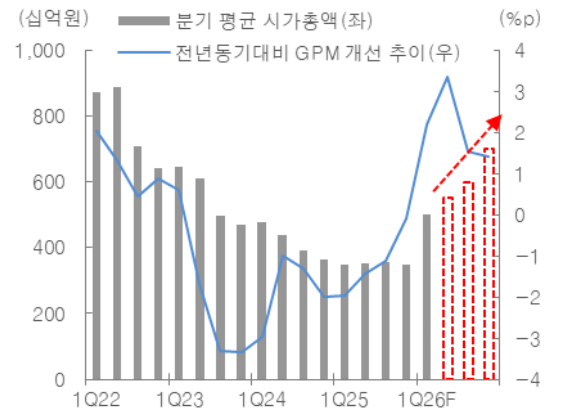
2. Earnings Driver

삼성전자 영업이익 & 소비자 심리지수



주: 2026년 실적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삼성전자, Fnguide,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섬 GPM & 시가총액 추이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85	1,492	1,631	1,792	1,792
매출원가	631	652	678	722	722
매출총이익	854	840	952	1,070	1,070
판매비와관리비	790	788	851	946	946
영업이익	63	52	101	125	125
영업이익률	4.3	3.5	6.2	6.9	6.9
EBITDA	135	112	160	182	182
영업외손익	-7	3	4	4	4
관계기업손익	0	7	7	2	2
금융수익	4	2	2	2	2
외환관련이익	2	1	1	1	1
금융비용	-4	-2	-2	-1	-1
외환관련손실	0	0	0	0	0
기타	-6	-4	-4	1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57	56	105	128	129
법인세비용	-13	-9	-25	-31	-31
계속사업순손익	43	46	80	98	98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3	46	80	98	98
당기순이익률	2.9	3.1	4.9	5.4	5.5
비지배지분순이익	-1	0	0	0	0
지배지분순이익	45	46	80	98	9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0	0	0	0	0
포괄순이익	42	45	79	97	97
비지배지분포괄이익	-1	0	0	0	0
지배지분포괄이익	44	45	79	97	97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840	837	872	942	1,107
현금및현금성자산	18	12	47	42	20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9	120	108	118	118
재고자산	624	627	652	717	717
기타유동자산	78	79	65	65	65
비유동자산	907	907	909	911	914
유형자산	583	603	619	634	646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324	305	290	278	268
자산총계	1,746	1,744	1,781	1,853	2,021
유동부채	265	238	214	208	20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9	159	163	168	168
차입금	44	39	32	25	20
유동성채무	14	0	0	0	0
기타유동부채	49	39	19	16	12
비유동부채	75	72	70	68	66
차입금	0	0	0	0	0
전환증권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5	72	70	68	66
부채총계	340	310	284	277	267
지배지분	1,406	1,434	1,496	1,576	1,655
자본금	12	12	12	12	12
자본잉여금	122	122	122	122	122
이익잉여금	1,310	1,340	1,404	1,485	1,567
기타자본변동	-38	-40	-41	-43	-46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406	1,434	1,496	1,576	1,655
순차입금	7	-6	-49	-50	-221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EPS	1,894	2,063	3,556	4,355	4,359
PER	7.8	7.6	4.4	3.6	3.6
BPS	59,656	63,912	66,691	70,241	73,781
PBR	0.2	0.2	0.3	0.3	0.3
EBITDAPS	5,717	4,975	7,114	8,126	8,109
EV/EBITDA	2.6	3.1	2.7	2.4	1.5
SPS	63,015	66,468	72,678	79,887	79,887
PSR	0.2	0.2	0.3	0.3	0.3
CFPS	5,608	5,608	7,750	8,764	8,747
DPS	750	750	750	750	750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8	0.4	9.3	9.9	0.0
영업이익 증가율	-36.8	-17.8	93.8	23.1	0.0
순이익 증가율	-46.5	6.8	72.3	22.5	0.1
수익성					
ROIC	3.7	3.3	5.7	6.7	6.5
ROA	3.7	3.0	5.7	6.9	6.4
ROE	3.2	3.3	5.4	6.4	6.1
안정성					
부채비율	24.2	21.6	19.0	17.6	16.1
순차입금비율	0.5	-0.4	-3.2	-3.2	-13.3
이자보상배율	16.3	30.3	66.3	91.1	100.3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102	107	112	90	159
당기순이익	0	46	80	98	98
비현금항목의 가감	89	80	94	99	99
감가상각비	71	59	58	58	57
외환손익	5	1	1	1	1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13	19	34	40	40
자산부채의 증감	-25	-9	-36	-76	-6
기타현금흐름	38	-10	-26	-31	-31
투자활동 현금흐름	-65	-61	-60	-61	-61
투자자산	-3	0	0	0	0
유형자산	-33	-60	-60	-60	-60
기타	-29	-1	0	-1	-1
재무활동 현금흐름	-38	-55	-45	-43	-42
단기차입금	8	-4	-8	-6	-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0	0
현금배당	-16	-16	-16	-16	-16
기타	-30	-34	-21	-21	-21
현금의 증감	-1	-6	35	-5	146
기초 현금	19	18	12	47	42
기말 현금	18	12	47	42	188
NOPLAT	48	43	77	95	95
FCF	58	43	75	92	92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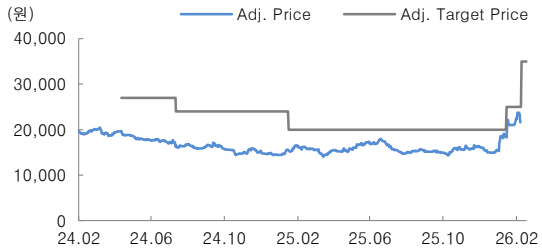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유정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한섬(02000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제시일자	26.03.05	26.02.09	26.01.21	25.12.01	25.11.28	25.11.0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목표주가	35,000	25,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괴리율(평균,%)		(12.57)	(20.16)	(21.89)	(22.38)	(22.39)
괴리율(최대/최소,%)		(5.00)	(4.25)	(17.15)	(19.30)	(19.30)
제시일자	25.08.10	25.05.07	25.02.10	25.02.06	24.11.20	24.11.16
투자의견	6개월 경과	Buy	Buy	6개월 경과	Buy	Buy
목표주가	20,000	20,000	20,000	24,000	24,000	24,000
괴리율(평균,%)	(24.33)	(19.91)	(22.60)	(35.58)	(35.03)	(33.13)
괴리율(최대/최소,%)	(21.40)	(10.10)	(17.05)	(35.13)	(28.50)	(28.50)
제시일자	24.09.05	24.08.06	24.05.07			
투자의견	Buy	Buy	Buy			
목표주가	24,000	24,000	27,000			
괴리율(평균,%)	(32.97)	(31.48)	(33.79)			
괴리율(최대/최소,%)	(28.50)	(29.75)	(29.00)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평균,%)						
괴리율(최대/최소,%)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기준일자:20260301)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0.0%	10.0%	0.0%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